

순천시, 가을맞이 갯벌 콘서트로 관람객 몰이

세계유산 활용사업...30~31일 공연
조이플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
오천그린광장 재정비 불거리 제공
캠핑촌·순천 비어페스타 행사 열려

순천시가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가을
맞이 관람객 몰이에 나선다.

순천시는 8월의 마지막 주말인 30일과
31일 오후 7시, 순천만 습지에서 여름밤
을 시원하게 해줄 순천만 갯벌 콘서트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 갯
벌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 가치
를 널리 알리고자 국가유산청에서 지원
하는 세계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기

획됐다.

30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음악회에 출연했던 조이플 앙상블
이 색소폰, 비올라, 피아노 등의 다양한
악기와 함께 무대를 꾸미고, 31일에는 혼
성 3인조 판도라와 혼성 듀오 조이앤서가
대중가요로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
다.

순천만 갯벌콘서트는 공연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심심할 틈 없는 체험
들이 마련돼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경
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
다.

선착순 100명의 사전 접수자에게는
5000원의 참가비로 편안하고 감성 충만

한 캠핑 좌석이 배정되며, 기념품과 간식
도 제공된다. 사전 접수는 전화(061-
724-5790, 010-7352-5790) 또는 네이
버에서 ‘순천문화유산활용사업’ 검색 후
가능하다. 사전 접수를 하지 않은 방문객
들도 현장에서 공연 관람 및 체험 참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오천그린광장 등을 재정비
해 놀러오는 순천을 만든다.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그라스는 오천그
린광장에 풍성하게 만발해 가을의 시작
을 알리며 방문객들에게 반가움을 안겨
주고 있다.

여름 끝자락에 선 지금, 연못 가득 수려
하게 핀 연꽃과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
리며 살랑거리는 팜파스그라스가 이루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아지 꼬리를 닮은 독특하고 화려한
외관을 가진 팜파스그라스는 SNS 인생
샷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사진 작가들
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순천
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사계절 푸른 잔
디와 다양한 초화류, 마로니에숲, 어린이
놀이터, 무대, 연못, 음악분수, 맨발걷기
길 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
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에서는
오는 31일, 마지막 여름밤을 장식할 ‘캠
핑으로 그린 아일랜드’와 ‘2024 순천 비
어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도시공원 환경정비 진행 미관 개선·이용객 편의성 향상

여수시가 추석を 앞두고 주요 도시공
원 178개소에 대한 대규모 환경정비 작
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은 웅천 장도공원, 이순
신공원, 거북선공원 등 관내 주요 공원
640만㎡를 대상으로 하며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긴 장마로 인해 무성하게 자란 초
목을 제거하고 잔디 깎기, 관목류 전정 등
세밀한 작업을 통해 미관 개선 및 공원 이
용객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공원 내 시설물과 공중화장실 등
점검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
경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고향을 방문
한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미관을 선
사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원 관리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광양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광양시는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 결과와 지난 12일 진월면 망덕포구에
서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확인했다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특별
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 섭취, 피부
상처와 바닷물의 접촉이 주요 감염원으
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월
과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월부터 9
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해당 감염병은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복통, 구토 등
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과 수포 등 피부
병변을 동반한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
자의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더
욱 주의가 필요하다.

박양숙보건행정과장은 “비브리오패혈
증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패
류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기,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
출 부위 씻기, 사용한 도마나 칼은 소독하
기,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개인위생에도 주의를 기울이
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지난 6월부터 매주 1회 실시
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
패류 취급 업소에 대한 수족관수 검사, 고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
관리에 힘쓰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여수시, 내달 2~13일

여수시가 추석 명절 대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준·
대형점포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 세트
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
며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조
사하고, 특히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
장재에 대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확
인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전문기관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
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포
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명절 선
물 포장 간소화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령이 분변토 생산시설 점검 고흥군, 민원발생·환경오염 예방

고흥군은 남양면에 있는 지령이 분변
토 생산시설(4개소)에 대해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폐기물처리 허가업체 2개소
와 신고업체 2개소 등 총 4개의 지령이 분
변토 생산시설이 있다.

이들 업체는 유기성 오니류 등의 폐기
물을 반입하여 지령이 분변토를 생산하
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령이 사
육 여부, 폐기물 재할용 기준 준수 여부,
반입 폐기물의 사전분석 여부 등 전반적
인 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관련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
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
업장에는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으
며 향후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
다.

군 관계자는 “지령이 사육시설과 관련
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
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
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자에게 폐
기물 관리 및 적정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구례읍 봉동5구마을 주민들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이 작은 공원에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쓰레기 넘치던 공원에 꽃밭 조성

구례군은 구례읍 봉동5구마을 주민들
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아파
트와 주택단지 사이 작은 공원에 아름다
운 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소공원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
견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봉동5구 박인화 이장을 중심
으로 공원 정비와 꽃밭 조성 작업에 적극

참여해 방치된 공원을 완전히 새로운 공
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이 사업은 ‘구례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공모사업에
서 ‘봉동 5구마을 산책 꽃길 만들기’ 프로
젝트로 1등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
다.

꽃밭에 심어진 다양한 계절 꽃들은 구
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에게 분양됐고, 주

장흥군 대창기업, 소화기 343대 기부



지난 23일 대창기업이 장흥군 지역사회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소화기 343대를 기부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지난 23일 대창기업이 지역
사회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소화기
343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소화기는 대형 100대,
소형 243대 등 총 343대다.
소화기는 장흥소방서와 의용소방연합

민들은 물 주기와 잡초 제거 등 사후 관리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만
있으면 마을 분위기를 이렇게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
다”며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
리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전라남도 우수사례지 현장평
가를 앞두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도 우수
마을을 선정해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제
공할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회 연계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
했다.

대형소화기는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축사와 마을회관(무더위쉼터) 등에 전달
하고, 안전취약계층에는 소형소화기를
배부했다.

군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
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다.

기부식에 참여한 유희옥 대창기업 전
무는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조성에도 도
움이 되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
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흥군민
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